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후원자분들께,

'성탄의 기쁨과 새해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opeful New Year!) 🎄⛄🌟❄️🎁

R국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ㅁㅅㄹ인 이곳에서는 성탄절 분위기를 좀처럼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소수의 성도분들과 주님 오신 기쁨을 나누고 또 그 기쁨을 믿지 않는 현지분들께 이런저런 모양으로 전하고자 기도하며 시도해보는 요즘, 동시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된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추세가 좀처럼 더디어지지 않았던 상반기에 Zoom과 Google Meet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해 비대면으로라도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 진리의 말씀에 흠뻑 빠져 누렸던 행복감을 다시금 기억하며 그같은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다소 잦아들었던 가을 학기에는 신학교에 모여서 비록 거리를 두고 강의했지만 그래도 보고팠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신실히 살며 사역하기를 다짐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감사했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여름에 앓았던 코로나 후유증으로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기는 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의 반짝거리는 눈빛들을 바라보며 강의할 수 있었던 특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기에, 또 그러한 저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더더욱 강하게 잘 드러날 수 있었기에 이 역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아니 돌릴 수 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이미 R국어로 번역되어 있기에 우크라이나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던 영국의 신약 학자 '톰 라이트'(N.T. Wright)의 '기독교 기원들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Christian Origins and the Question of God) 시리즈의 방대한 저서들을 현지 교수님들과 함께 읽고 비판적으로 토론해왔던 작업을 드디어 이번 해에 다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아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지혜로 ㅋㅇ 대학교 사역을 즐겁게 헌신적으로 감당해왔던 아내에게, 더하여 참 감사한 기억으로 남을 일은 여름부터 시작하게 된 NGO 사역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할 일이 별로 없어 방황하며 어찌하든지 돈을 벌러 외국으로 나갈

방도를 찾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번 해 봄에 배출된 ㅋㅇ 대학교 첫 졸업생들을 어떻게든 취직 시키고자 기도하며 애써왔던 아내는 한국의 어떤 기독 실업인분들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된 NGO에 ㅋㅇ대 졸업생 두 명을 취직시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그 둘 중 한 명이 아내의 영적인 딸과 같은 'ㅇㅇㅈ'이고 다른 한 명도 아내가 아끼는 'ㅇㄹ'여서 아내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자매들과 함께 NGO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스탄 접경 지역인 '밧켄'에 분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 주민들을 돕기 위해 10월에 NGO 주최로 바자회를 열었고, 11월에는 ㅇㅇㅈ과 ㅇㄹ와 함께 직접 ㅂㅋ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저희 단체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사랑과 함께 전했고, 12월 21-23일에는 다시금 ㅇㅇㅈ과 ㅇㄹ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가 성탄 선물들을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담낭염 수술을 받은 이후 다소 약해진 몸 상태에 있는 또 그와 연관되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아내였지만 그러한 제한들을 넘어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ㅋㅇ대 사역과 NGO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기도편지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돕고 있는 ㅇㄷㅇ 교회에서 무사히 여름 성경 캠프를 열고 진행하는 가운데 참석했던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이나, 또 코로나 감염으로 한 달여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대학 진학 준비 작업이 뒤쳐져 있었던 하나였지만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들에 잘 지원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감사하게 여러 학교들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게 하신 일 등도 이번 해에 허락해주셨던 무수한 감사의 제목들 중의 일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떠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무익하고 부족한 저희 가정에 그처럼 크신 은총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까닭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의 무릎과 손 모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빌어 미흡하지만 깊이 머리 숙여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중보와 지속적인 동역으로 말미암아 내년의 삶과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기에 또한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연말연시의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그 사랑에 참 감사 드리며 이만 이번 해의 마지막 기도편지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김정진, 서지현, 김하나 드림

<기도제목>

첫째, 아직까지 ㅇㅅㄹ 세력이 강한 이 땅에 복음 사역이 더 강력하게 펼쳐져서 더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둘째, 맡겨주신 연합 신학교 사역, ㅋㅇ 대학교 사역, NGO 사역, 그리고 ㅇㄷㅇ 교회 협력 사역을 내년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실히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셋째, 주님께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해주신 학교들 중 하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교에 장학금들을 충분히 받으며 입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지 이제 칠 년 째이기에 내년 여름부터 안식년을 가질 예정인데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재정비와 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할 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